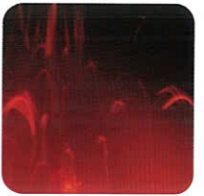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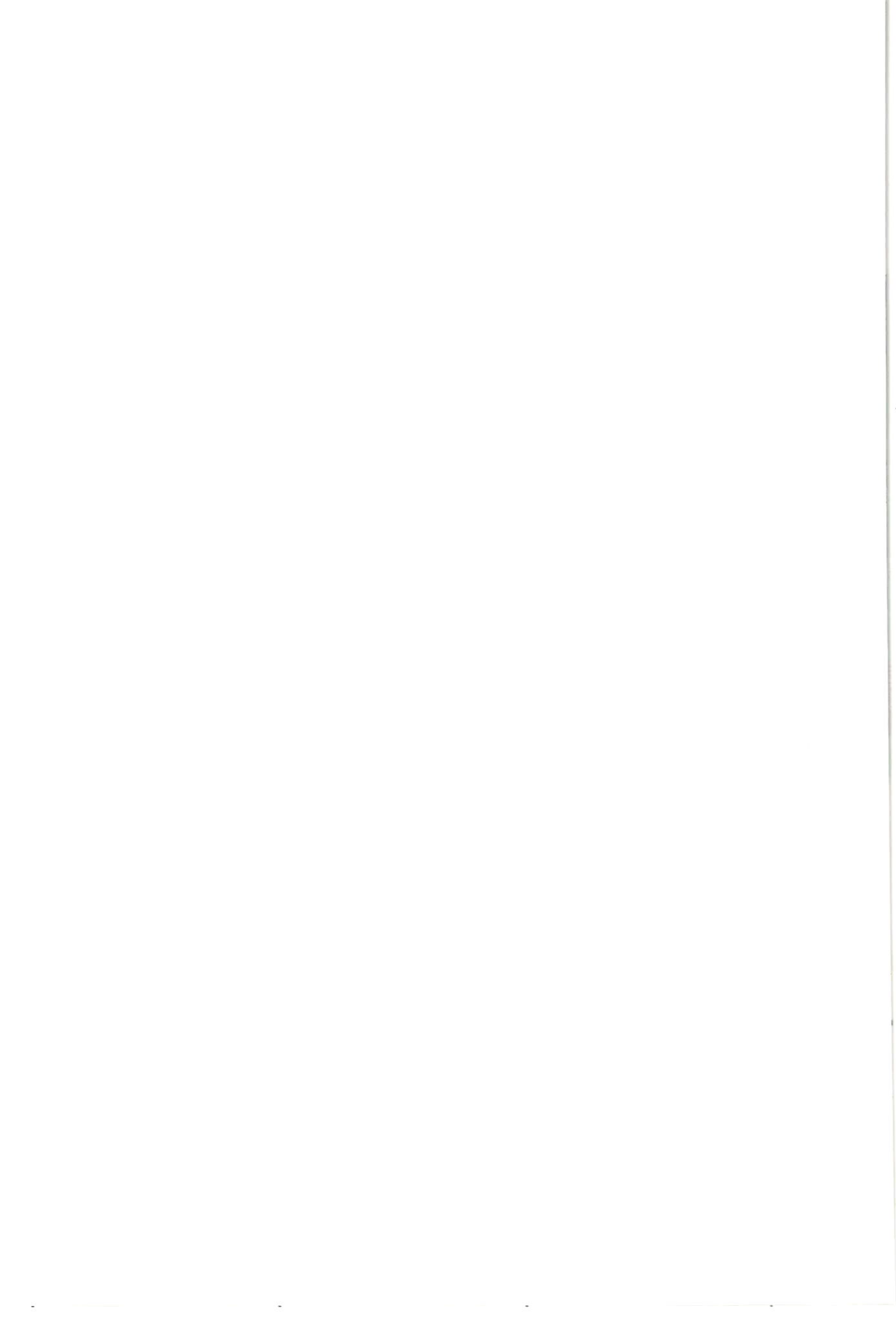
재해와 자원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전국재해구호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Disaster Relief



목 차

1장 재해와 방재

□ 재해란 무엇인가?	4
1. 재해의 정의	4
2. 재난재해 관리체계	6
3. 우리집의 방재회의	7
□ 재해시 행동요령	9
1. 집중호우	9
2. 태풍	14
3. 해일	19
4. 화재	20
□ 응급처치	27
1.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27
2. 인공호흡	28
3. 심폐소생술	30
4. 쇼크	32
5. 골절	33
6. 출혈	33
7. 식중독	34
8. 화상	34

2장 재해와 자원봉사

□ 재해구호자원봉사	36
1. 재해구호자원봉사란 무엇인가?	36
2. 재해지역에 의연품을 보내고 싶을때	38
□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	41
1.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면	41
2. 재해지역에서의 활동	45
3.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주의할점	46
4. 재해구호활동시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	47

재해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10가지 방법

1. 나와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2. 화재나 감전이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불단속을 한다.
3. 비상탈출구를 확인해둔다.
4.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바로 끌 수 있도록 소화기의 준비나 점검은 물론 평상시부터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둔다.
5. 손전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야간에 정전이나 대피할 때를 대비해 손전등은 가까운 곳에 준비해두자.
6. 산사태, 해일을 조심한다.
위험한 요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구조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자.
7. 대피는 도보로, 비상소지품은 평상시부터 배낭 등에 넣어 정리해두고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나 자동차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 담장 근처, 벼랑, 강, 좁은 도로 등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9. 정확한 정보를 가려듣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해두고, 유언비어나 소문에 휩싸이지 말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행동하자.
10.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도와주도록 한다.
초기 소화시에 모두 힘을 합쳐 대처한다.

1장 재해와 방재

재해란 무엇인가?

1. 재해의 정의

재해와 재난은 법(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재해** :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 하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는 재난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한편,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중에서도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재해는 인위 재해라 불리우고, 재난으로 분류되게 된다.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와 재난이 위에서 언급한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재해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 ① 재해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 ②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 ③ 재해발생 장소에 의한 분류
- ④ 재해 대상에 의한 분류
- ⑤ 피해의 직·간접성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재해발생 원인과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천재)와 인위재해(인재)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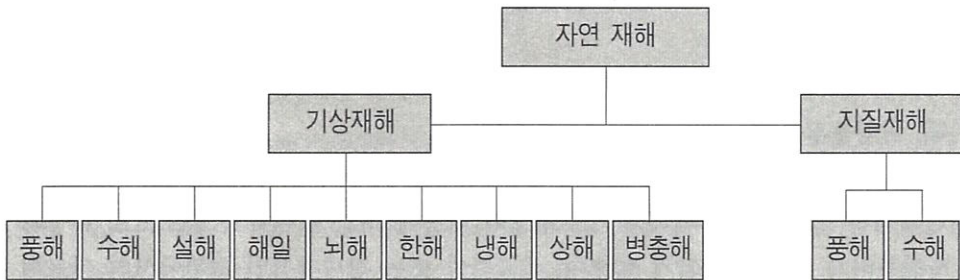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 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하면서 기

상재해도 발생시킨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방어 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연재해의 분류를 도표화하면 [자연재해분류]와 같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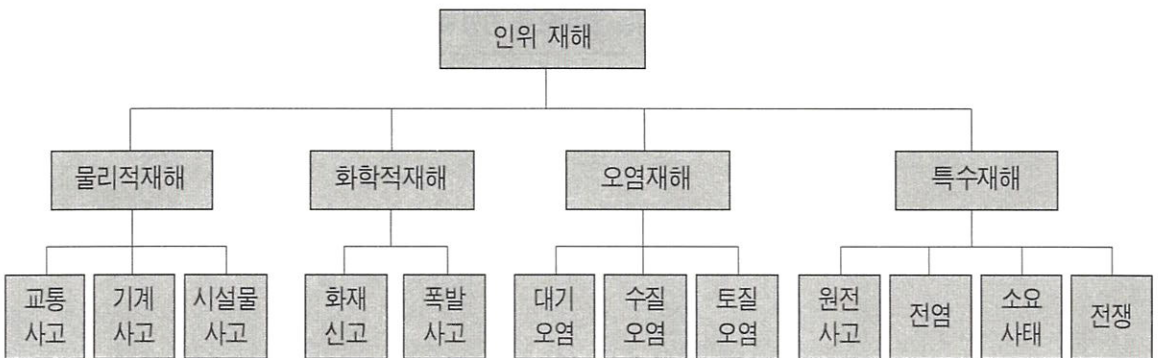
〈자연 재해 분류〉



인위재해란 [인위재해분류]와 같이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해 피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재난을 총칭한다.

인간의 부주의, 기술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인간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어 야기되는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 등이 있다. 또한 산업발달에 수반되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재해들은 기술과 산업의 발달을 추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핵발전소, 화학공장의 가동, 농약의 개발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오염과 자연파괴, 생태계 파괴 등을 말한다.

〈인위 재해 분류〉



따라서 재해를 위와 같이 원인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자연재해(천재)와 인위재해(인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재해가 증가되고 있다. 재해방지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인위재해는 근본적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는 발생자체를 줄이기에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급성재해와 만성재해로 나눌 수 있다.

급성재해란 그 발생과 진행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재해로서 폭풍, 홍수, 산불, 해일, 산사태, 위험물질 누출, 폭발 등을 들 수 있다.

만성재해란 그 진행이 느린 재해로서 전염병, 병충해 등의 농작물 피해와 환경파괴 등이 있다. 만성재해는 상대적으로 재해의 정보전달과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사전준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또는 전세계적인 범위에서의 자료의 전달과 교환을 통해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급성재해는 만성재해에 비하여 급격하고 또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2. 재난·재해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재난재해관리는 국가방위 체제를 중심으로 전시대비체제, 자연재해관리체제, 인위관리체제로 구분하여 각각 민방위,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의 3원적 법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예방 및 완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방지
대비 및 계획	유사시 신속, 원활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립
대 응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복 구	사회의 기능을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활동수행

3. 우리집의 방재회의

재해가 닥쳤을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 시간에 집안에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통신이 두절되고 도로가 유실되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족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부터 가족회의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재해가 발생하면 서로 어떻게 연락을 취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놓는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 가족 방재회의

- 대피장소나 대피하는 순서, 각각의 역할을 정하자.
- 하루 중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3정도, 나머지 시간은 각자 재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 있을 동안의 대피장소나 연락방법을 확인해둔다.
-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가 연결되기 쉽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친·인척의 집을 중계지역으로 정해둔다. 가까운 곳은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대피로 확보

- 항상 현관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군데 이상의 출구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아파트 등에는 로프와 같은 대피기구를 사용해 창문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대피방법을 확인해둔다.

3) 집안 점검

- 깨진 유리조각에 발을 다치게 되면 대피할 수가 없게 되므로 침대밑에 운동화나 슬리퍼를 둔다.
- 손전등은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걸어두도록 한다.

4) 자동차 점검

- 자동차는 긴급대피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 카라디오로 지역의 정보를 듣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다.
- 물, 비상용 식량, 모포 등을 트렁크에 넣어둔다.
- 자동차의 열쇠는 3개 정도를 준비해 현관이나 뒷문 등 몇군데에 분산시켜 둔다.

5) 비상물품 확보

- 비상시에 소지할 수 있도록 배낭에 넣어 준비해둔다.
- 음료수와 물등 식료품은 최저 하루분, 가능하면 3일분을 준비한다.
-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나중에 가지러 올 수 있는 것등을 나눠서 보관한다.
- 비상물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곳 (현관, 차의 트렁크 등)에 분산해서 둔다.
- 외부인은 찾기 힘든 곳, 그러나 가족들은 들고 나가기 쉬운 곳에 보관해둔다.
- 1년에 한번은 점검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교환한다.
- 남성은 15kg, 여성은 10kg 이하로 준비한다.

〈비상물품 목록〉

필수품	안경, 손전등, 집열쇠, 목장갑, 차열쇠, 모자, 우비, 수건, 물, 비상약, 현금, 휴지		
	이것만은 꼭	있는 쪽이 편리	주의사항
식료품	생수		일인당 하루 3리터가 기준
	비스킷 등 비상식품	통조림, 즉석 식품	최저 하루분, 가능하면 3일분
	(가루우유, 우유병)		
	환자식		
의료용품	항생제, 진통제 (지병인 경우 상비약)	감기약, 위장약, 안약 가제, 붕대, 반창고	
	물휴지		
	휴지		
	(종이거저귀, 생리용품)		
귀중품	현금		동전도 필요
	예금통장, 인감		유가증권 등 중요한 서류는 복사를 해 두거나 번호를 적어둔다
	면허증, 의료보험증	여권	
의류	속옷	겉옷	
	장갑, 모자	헬멧	
그 외	우비	(예비안경)	
	마스크		
	라디오	건전지(라디오, 손전등용)	
	손전등 (휴대전화)	양초 (충전기)	
	수건, 비누	성냥, 라이타	
	필기용품	강통따개, 칼	
	비닐봉지	휴대용 가스버너	
	호르라기	로프	

재해시 행동요령

1. 집중호우

1) 집중호우란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평균적인 강우 강도의 우량을 훨씬 넘는 강한 강우현상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집중호우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열대의 스콜을 연상케 하며 하루 동안에 연 총강수량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1시간에 100mm를 넘는 비가 내리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대단히 습한 많은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유입할 때 발생하며 지형의 영향으로 더욱 국지성을 띤다. 특히 우리나라 장마철의 비는 짧은 시간에 맹렬히 쏟아지는 호우이다.

1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경우도 많고, 1시간 동안 100mm를 넘는 집중호우도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다.

1996년 7월 경기북부지역의 파주, 문산, 연천 및 1998년 8월 서울, 경기 등 우리 나라 전역을 강타한 게릴라성 호우는 많은 홍수를 일으켜 큰 피해를 주었던 예들이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중소하천의 범람, 토사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축대가 있는 곳이거나 가까운 곳에 새로 조성된 주택가가 있거나 하는 곳에서는 기상정보를 잘 듣고 주의하여 만전의 대책을 세워놓자.



2) 호우주의보, 경보의 발표 기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호우에 의해 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호우에 의해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4시간 강수량이 약 80mm 이상이 된다고 예측되는 경우	24시간 강수량이 약 150mm 이상이 된다고 예측되는 경우

3) 시간당 강우량에 따른 현상

5~10mm	빗소리가 잘 들리고 물웅덩이가 고임
20mm~30mm	폭우로 인해 금방 하수구가 넘침
50mm 이상	쏟아붓듯이 내리는 비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해짐
100mm 이상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

4) 호우로 인한 재해

■ 홍수해

큰 비나 폭설 등에 의해 하천에 유입되는 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일반적으로는 제방이 무너지거나, 하천의 수위가 제방을 넘어 일어나면서 생기는 재해를 홍수라고 한다. 외수범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택지개발과 같은 도시 개발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콘크리트로 덮여진 도심에서는 땅속에 스며 들어있는 물의 양은 극히 적고 지표에 흐르는 물의 양은 많아진다. 따라서 뇌우 등으로 인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하천이 범람하기 쉬워지게 된다.

특히 강유역의 개발이 진행되면, 비가 내리면 하천의 물이 불어나기까지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가장 높아지는 때의 수위와 흐르는 물의 양도 커지게 된다. 반면, 원시림처럼 보드라운 부엽토로 덮여있는 토지에서는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어 지표에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홍수가 되기 어렵다.

하류지역에서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 내린 비로 하류에 있는 하천의 수위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방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 침수해

큰 비가 내리면 배수시설이 감당해내지 못해 하수구, 용수 등이 넘쳐나거나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수위가 높아져 배수가 방해받거나 하여 일어나는 재해를 말하며 내수 범람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하여 도시 근교의 구릉이나 계곡이 개발되고 전답이 매립되어 택지 또는 상공업지역이 되는 등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다. 따라서 미개수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택, 공장 등 시설물이 집중되고 무질서하게 산지가 개발되는 등 인위적인 현상에



의한 홍수의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는 중소하천의 범람이 일어나기 쉬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린 비가 낮은 장소로 모여지기때문에, 하수시설에 의한 배수능력의 한도를 넘게 되어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지하시설이 많아지면서 지하도 침수, 빌딩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토사재해

토사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은 많다. 특히 산을 깎아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토사재해가 더욱 늘고 있다.

① 토사재해와 강우의 관계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수분을 많이 포함하게 된 데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다. 강한 비가 내려도 그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지면이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붕괴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지면이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아주 작은 양의 비에도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

토석류는 산사태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이미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 단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 발생하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② 토사재해의 종류

● 산사태

호우나 폭설에 의해, 건축으로 생긴 급한 사면이나 산비탈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현상. 지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토사

계곡이 있는 지역에 무너져 쌓여있던 토사나 암석이 홍수에 의해 한꺼번에 하류에 쓸려내려오거나, 급경사를 따라 쓸려 내려오는 토사나 암석이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면서 떨어져 내려오는 현상

● 지반침식

사면의 토양이 비교적 천천히 쓰러져내려오는 현상. 지질이나 지하수 등의 영향이 크고, 강우나 폭설 등이 원인이 되어 특정한 장소에 발생한다.

③ 토사재해의 징후

토사재해의 대부분은 장마나 태풍 시기에 발생한다. 장마나 폭우에 의해 지면에 다량의 수분이 스며들면서 약해진 사면이 쓰러지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시간에 20mm 이상, 또는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100mm 이

상의 폭우가 계속되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장마나 태풍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토사재해의 징후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토사재해의 전조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산사태

- 벼랑의 사면에 갈라진 틈이 보인다
- 벼랑의 사면으로부터 물이 용출된다
- 벼랑의 사면으로부터 작은 돌이 굴러떨어진다

◇토석재해

- 산비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 고무가 타는 것과 같은 냄새가 난다.
- 갑자기 강의 흐름이 탁해지고 나무토막 등이 섞여 있다.
-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강의 수위가 낮아진다.

◇지반침식

- 연못이나 우물의 물이 탁해진다
- 지면에 균열이 보인다
- 사면으로부터 물이 용출된다.

5) 호우시 방재대책

호우에 의한 재해로부터 몸을 지키고,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 ① 언론의 기상정보를 주의깊게 듣는다. 항상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② 스스로 강우량을 재본다. 1시간에 20mm이상, 또는 내리기 시작할때부터 100mm 이상 내렸을 경우에는 재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때부터 계속 강한 비가 내리면 집 주변의 안전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 ③ 위험한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비로 인해 불어난 소하천이나 하수구, 맨홀에서 사고가 나기 쉽다.

- ④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방재기관(1588-3650)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 ⑤ 대피할 때에는 소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배낭에 넣어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에 잠긴 곳에서 대피할 때에는 특히 발밑을 조심한다. 가족 중에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 ⑥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과거에 홍수, 침수나 산사태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지, 또한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둔다. 위험지역을 자주 확인하여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비해두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6) 호우시 대처방법

■ 홍수 발생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하천과 강에 대한 위험 정도를 알아놓고 안전한 장소 및 대피로를 확인한다.
-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둔다.
- 식수, 비상식량, 구급약, 라디오, 손전등을 준비한다.
- 하수구를 통해 물이 역류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흐름 방지밸브를 설치한다.



■ 홍수 발생중

<집안에서>

-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한다.
- 시·군·구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등 방재관계기관의 홍보내용을 주의깊게 듣는다.
- 호우시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외출했을 때에는 빨리 귀가해 근무처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취해놓아 비상시를 대비 한다.
- 비상 소지품을 준비해둔다.
- 위험한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피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피한다.
-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가재도구나 식료품, 의류, 침구 등과 같은 생활용품을 높은 장소에 옮겨 놓는다.
- 노약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집밖에서>

- 지붕, 간판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 담장, 축대, 현관 창문을 살펴보고 보수한다.
- 안테나 선을 확인하고 잘 보강한다.

- 베란다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서랍 등에 집어넣고 화분, 빨래걸이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 상가 등에서는 자동판매기, 상가 앞에 둔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둔다.
- 이미 침수된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은 피한다.
- 침수된 도로위를 운전하지 않는다.
- 운전중에 물이 발목까지 차는 흐름을 만났을 때 정지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 홍수 발생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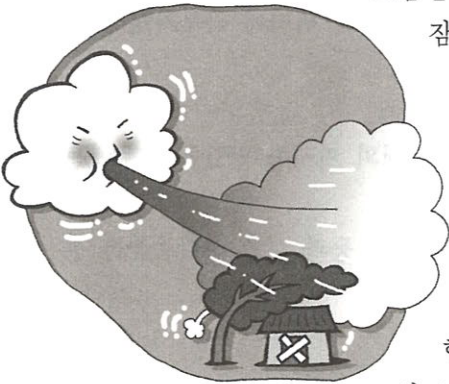
- 햇불 또는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손전등으로 건물을 점검한다.
- 음식이 홍수류에 접촉되었다면 버린다.
- 물을 끓여서 사용한다.
-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검진을 받는다.
- 가전제품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전에 말려야 한다.
- 재난지역을 이유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2. 태풍

1) 태풍이란

폭풍우는 주로 저기압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여름철에 열대지방의 해상에 많이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또는 온대 혹은 한대의 경계지대에 흔히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이다.

주로 여름철에 열대지방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 해상의 막대한 수증기를 포함한 수렴기류를 강제로 상승시켜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한 잠열로 계속 세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중심부근의 풍속이 17m/sec이상으로 발달되는 것을 태풍이라 한다.



바람은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중심으로 몰려들고 중심부근에 가까워질수록 비바람은 점점 강해지며, 중심에서 50~60km의 거리에 이르면 절정을 이룬다. 태풍중심으로 갈수록 비바람은 점차 약해져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없는 구역이 원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태풍의 눈'이라고 부른다. 태풍

의 눈에 해당하는 구역의 하늘은 맑게 개이며 그 크기는 태풍에 따라 직경이 수십 km에서 수백 km에 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심기압은 900~990hPa의 범위이고 강우현상은 태풍의 눈을 제외한 중심의 전방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대부분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진행방향으로 볼 때 우측이 좌측에 비하여 바람도 강하고 강우량도 2배 정도로 많다.

태풍은 매년 그 발생 회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년에 약 26개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 2,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태풍이 건조한 육지로 상륙하면 점차 쇠약해지지만 이 때부터 호우와 폭풍이 위력을 떨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과 태풍 내습기가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때로는 9월에 태풍이 도달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며 6월에도 태풍의 통과로 인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2) 풍속과 피해

10m	우산이 부서진다.
15m~20m	허술하게 달려있는 간판이나 함석들이 날아감. 소형선박 주의. 상체를 30도 정도 수그리지 않으면 바람을 향하여 걷기 힘들. 오래된 담벼락은 부서짐.
25m~30m	기왓장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넘어짐. 전파 혹은 반파 가옥이 급증.
40m	열차의 객차가 넘어짐, 작은 돌들이 날아감. 서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하기 힘들다.
50m	대부분의 목조가옥은 쓰러지고, 가로수는 뿌리채 뽑힘.

3) 태풍에 대비한 안전대책

태풍의 강한 바람은 이중구조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강하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약해져도 약 1, 2시간후에는 또다시 소생한 강풍이 불어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바람이 약해졌다고 해서 지붕위에 올라간다든지, 집 주변을 다닌다든지 하는 일은 위험하다.

집이 튼튼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대피소로 옮기고 태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린다.

만일 하루 강수량이 100mm를 초과하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20mm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변을 면밀히 점검한다. 오랫동안 계속된 비가 태풍중심권 이전부터 지속된 상태에서는 이보다 적은 강수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호우시 산간계곡 부근에서는 토사의 유실을 경계하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대피한다. 산중턱의 골짜기 물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때는 토사의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심한다.

■ 태풍 통과전

- 평상시 지형이나 지질을 잘 조사하여 산사태나 하천범람의 위험이 없는지를 알아둔다.
- 하수도를 정비하고 축대나 담장 등을 점검한다.

- 태풍권에서는 정전과 단수사태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병원과 같은 중요 시설에서는 보조 전원장치를 점검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라디오, 손전등, 건전지 등을 준비하고 각종 용기에 물을 저장해 둔다.
-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 밖을 합판 등으로 막고, 만일의 경우 유리창 등에 의하여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준비한다.
- 자동차에 충분히 연료를 채워 두고 대피 시에 옮길 물품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가족 가운데 각자의 행동과 책임을 정해 둔다.
- 모래주머니, 합판, 플라스틱판, 목재 등 만일의 피해시 응급복구를 위한 준비를 해 둔다.
- 해안지대에서는 선박을 단단히 묶거나 안전한 육지로 대피시킨다.
- 만일의 사태시 연락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과 병원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둔다.

〈가정에서의 준비〉

- 창문이나 현관문을 잠그고, 필요하다면 밖에서 합판을 대어 보강한다.
-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버팀목을 해두고 담장을 보강한다.
- 배수구를 잘 청소해두어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한다.
- 텔레비전 안테나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보강한다.
- 현관밖에 있는 물건중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물건들은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해둔다
- 현관문이 부서지거나 파손될 경우 깨진 유리조각이 날리지 않도록 유리에 테이프 등을 붙여둔다. 집밖에서 물건들이 날아와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 커튼을 쳐두거나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
- 비상소지품을 준비한다.
- 단수에 대비하여 음료수를 확보한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아 화장실용 등 생활용수를 확보해둔다. 물이나 식료품의 준비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 학교나 마을회관 등 대피장소를 잘 알아두고 그 곳에 가는 길도 잘 확인해둔다.
- 승용차에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점검한다.
- 이웃과 친지에게 전화하여 준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태풍 통과시

- 태풍이 접근해올 때에는 집밖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간다.
- 물이 무릎이상 빠지는 냇물을 가로질러 건너지 말아야 하며 물이 불어나 넘쳐흐르는 도로로 차를 몰지 않는다.
- 위험한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특히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난 소하천이나 하수구, 또는 도로위에 있는 맨홀도 위험하다.
- 강풍에 의해 날아가기 쉬운 물건을 머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는 경우에는 헬멧과 같은 안전모를 쓰고 나간다.

- 팬 현상에 의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쉽다. 폭풍우 가운데에는 모닥불이나 양초 등 불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 마음속으로 대피할 경로를 생각해 본다.
- 비상식품을 준비해둔다 (물, 비상식품, 구급약, 초, 성냥, 유아용품 등)
-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을 집안에 넣어두고 대피의 경우를 대비해 애완동물의 사료도 충분히 준비한다.
- 귀중품과 가재도구를 위치가 높은 곳으로 옮긴다.
- 냉장고를 최대한 차갑게 하여 놓고 필요시에만 연다.

■ 태풍 통과후

- 복구 및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허락이 있기 전에 재해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침수되었던 음식물은 먹지 말고, 물은 마시기 전에 반드시 위생여부를 검사하며 특히 지하수는 주의한다.
- 습기찬 지역에서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기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말리고 점검한 후에 사용한다.
- 도로의 지반침식, 붕괴 등을 생각하여 자동차 운전을 삼간다.
- 늘어지거나 매달려 있는 전선을 피하고 이를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한다.
- 상하수도 및 전기선의 파괴 및 피해를 보고한다.
- 가스가 새는지 점검한다.

■ 대피할 때에는

- 대피는 밤에 하지 말고 가급적 날이 밝을 때 한다.
- 물이나 전기의 주 공급 장치를 차단한다.
- 가벼운 차림으로 이동한다.
- 집문을 잠가 둔다.
- 방재기관등으로부터 대피의 권고나 지시를 따르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소지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배낭을 짊어지거나 하여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 머리는 헬멧이나 안전모로 보호한다. 맨발은 금물이며, 신발은 튼튼하고 바닥이 두꺼운 것이 좋다. 장화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걷기 힘들다.
- 침수된 장소를 대피할 때에는 특히 발밑을 주의한다.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떼지 말고 잘 보살펴야 한다.
- 대피소에 갈때는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체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는 차로 대피소에 가는 것을 피해야한다

- 이웃중에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있으면 방문하여 위험을 알리고 함께 대피하도록 한다.
- 대피소에서는 자기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리더의 지시에 따른다.
- 계속해서 태풍 정보나 주의보, 경보에 귀를 기울인다.

4) 농작물 대책

■ 태풍통과전

- 논물을 벼 키의 60%까지 깊이 댈다.
- 이삭이 나오는 논은 새 그물을 친다.
- 고추, 참깨 등에 지주를 세워 묶어 준다.
- 과수는 지주를 세워 받쳐주고 가지를 끈으로 엮어매 준다.
- 침수지역의 가축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사료조달계획을 세운다.

■ 태풍통과후

- 쓰러진 벼는 1일 이내 포기씩 가볍게 묶어 세워 준다.
- 깊이 댄 물을 빨리 배수하고 흙탕물에 젖은 벼는 맑은 물로 씻어준다. 다만 이삭이 팬 후 30~35일경까지는 물을 완전히 빼서는 안된다.
- 쓰러진 참깨, 고추 등은 서둘러 세워주고 병충해 예방을 위하여 농약을 뿌려준다.
- 떨어진 과실중 상품가치가 있는 과실은 골라 출하하고 상처가 난 과실은 땅에 묻어 병균의 근원을 없앤다.
- 과수의 찢어진 가지나 부러진 가지는 밑부분을 깨끗이 자른 다음 살균제를 살포하고 쓰러진 나무는 세워 움직이지 않도록 지주를 세운다.
-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쓰러졌을 경우에는 빨리 수확하여 닭근먹이를 만들도록 하고 수확하고 난 포장에는 호밀이나 유채 등 뒷그루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한다.

5) 침수된 지역을 빠져나갈 때에 주의할 점

- ① 침수가 되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깊이는 남자는 약 70cm, 여자는 약 50cm.
수심이 허리정도까지 찼을 때에는 무리해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높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려야한다.
- ② 수면밀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로 지팡이처럼 짚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걸어야 한다.
- ③ 맨발이나 긴 장화는 금물,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운동화가 좋다.
- ④ 일행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몸을 끈이나 로프로 묶어 대피하자. 특히 어린이를 동반할때는 어린이에게 눈을 떼지 않도록!

- 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등에 업도록 한다. 어린이는 튜브를 이용해 안전을 확보한 후 대피하자.

6) 지하공간은 위험

호우때에는 지하실이 위험하다.

침수의 위험이 있을때에는 재빨리 대피하자.



■ 지하공간의 위험 요인

- 지하가 침수되었을때에는 한꺼번에 물이 흘러 들어온다.
- 환기구, 채광창 등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 지하실에서는 바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 침수시 전기가 나간다
-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 수압으로 인해 문을 열수 없다
- 지하에 있을때에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태풍<매미>가 발생한 마산에는 특히 지하침수에 의한 희생자가 많았다. 마산해운프라자에서는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대형건물의 지하에는 외부계단도 있지만 수압이 심하면 문을 열지 못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많은 피해자를 낼 수 있으므로 지하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3. 해 일

1) 해일이란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수면의 이상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그 원인으로는 기압의 급하강과 태풍이 지적되고 있다.

2) 해일에 의한 재해

- 해일에 의해서 초래되는 재해를 해일피해라 하며, 구체적으로 해일이 갖는 큰 유압과 강한 풍랑에 의한 인명피해, 항만시설과 제방파괴, 선박피해, 해안근처의 농경지 침수 및 양식장 피해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해일피해는 남해안지방이 제일 많으며 다음이 동해안의 순으로 태풍 접근

이나 통과시에 많다.

태풍 매미에 의한 사망자 피해조사 중 해일에 의한 사망자는 30명으로, 이는 하천급류에 의한 사망자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해일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해일이 올때 고려할 점

- 강풍의 방향과 마주보는 위치의 항구는 바닷물이 몰려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항만에 계속 머물게 되며 이 때 해일의 높이는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피해는 커진다.
- 해안부근의 해저가 얇은 때는 마찰이 크며 이 때 해저에서 심해 쪽으로 흐르는 역류가 방해를 받음으로써 해일이 발달하기 쉽다.
- 항만 내에서의 선박 계류를 강화하며 태풍 시 방재요령에 준하여 행동한다.

4. 화재

1) 화재시 생명을 구하는 10가지 방법

1. 잠자리에서 담배는 절대 금지.
2. 노인이나 환자, 유아, 어린이만을 남겨두고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3. 비상시 방향이 다른 2개 이상의 대피통로를 결정해 두어야 한다.
4. 가구는 가급적 방재제품을 사용한다.
5.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가스 및 전기 점검을 확인한다.
6. 화재가 났거나 발견했을 경우 큰 소리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7. 복장이나 귀중품을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대피한다.
8. 연기 속에서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서 대피한다.
9. 일단 밖으로 대피하였을 때에는 절대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10.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19에 알린다.

2)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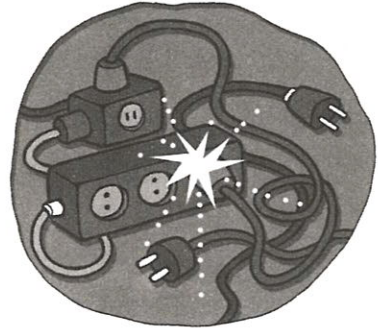
■ 집 주변을 점검한다.

- 외부에서 방화를 할 수 없도록 신문지나 종이 박스등은 반드시 집안에 둔다.

- 빈집, 차고, 창고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 집을 비울 경우에는 이웃에다 이야기를 해둔다.

■ 전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자

- 전기배선이나 코드 위에 물건을 두는 것은 위험.
- 장기간 전기를 사용한 후에는 플러그 등이 뜨겁지는 않은지 확인.
-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잠자리에 들 때에는 난방기구를 꺼야 한다.
- 번개가 심한 날은 컴퓨터, TV 등을 켜지 않도록 한다.



■ 난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석유난로에 급유할 때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기름통의 뚜껑을 확실하게 닫았는지 확인하며 특히 석유난로의 불을 켜 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 난로 가까이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는 것은 위험.

■ 불장난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 인화성물질(휘발류, 신나)이 있는 장소 내에서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
- 쓰레기통이나 화학약품이 있는 저장소 등에 성냥과 같이 불이 붙은 것을 던져서는 안 된다.

■ 평소부터 방재 훈련을 해 두어야 한다.

- 아무리 오래동안 살았던 집이더라도 급히 대피하려고 하다보면 당황하여 대피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 각 가정에 따라 대피방법이 다르므로, 각각의 집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인 대피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화재발생시 탈출경로를 정해 놓고 전 가족이 탈출훈련을 해 보도록 한다. 탈출구는 2개 이상의 별도의 방향으로 정해두어야 한다.
- 마루나 출입구, 계단 등에 대피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놓아두지 않는다.
- 소화기 사용방법을 익혀놓는다.

3) 소화기 사용방법

119에 통보해도 바로 소방차가 올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수분 동안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초기소화에서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기는 초기소화의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한다. 만일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분말소화기>

①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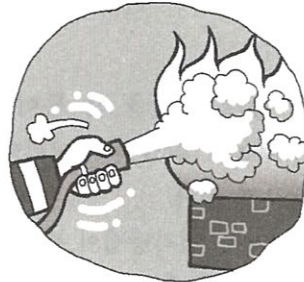
② 안전핀을 뽑는다.



③ 바람을 등지고 불이난 곳으로 호스를 겨냥한 다음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는다.



④ 약제가 나오면 호스를 천천히 움직여 비로 쓸 듯이 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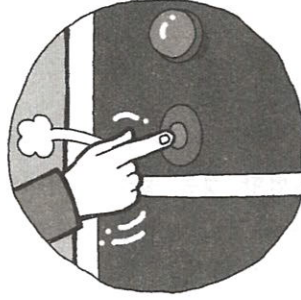
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소화기를 조작하면 불길로 인한 화상의 위험과 소화 약제가 바람에 날려 눈이나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불이 꺼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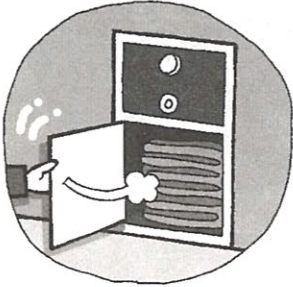
① 소화전이 있는 곳을 찾아본다.



② 기동버튼을 누른다.



③ 소화전의 문을 연다.



④ 호스를 길게 뽑는다.



⑤ 개폐 밸브를 연다.



⑥ 물을 뿌린다.



** 소화전을 사용할 때에는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명이 힘을 합쳐 조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화기를 사용할 때

- 가능한 자세를 낮게 하고, 연기나 열기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비상구를 등으로 지고 소화한다.
- 일단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타는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끼얹어 완전히 끈다.

- 초기소화의 한계는 불이 화원으로부터 커튼이나 벽등을 통해 천장으로 불이 닿기 전까지다.
- 천정까지 확산되었을 때에는 초기소화는 무리이므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4)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피하는 것이다.

- 화재시 가장 위험한 것은 불꽃이 아니라 유독한 연기. 가능한 낮은 자세로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길의 반대편으로 대피한다.
- 책, 가방, 귀중품을 챙기느라고 대피시간을 놓쳐서 안되며, 대피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위험.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 당황하여 뛰게 되면 불이 더 빨리 타게 되므로 가슴 앞에 팔을 모으고 바닥에 엎드려서 천천히 몸을 굴린다. 이불, 카펫 등을 몸에 감아 불을 끌 수도 있다.
- 대피할 때에는 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 대피 전에 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화에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집안 사람이 모두 대피하고 여유가 있을 때.
- 불이 작아 위험이 덜할 때(쓰레기통, 방석 등에서 화재발생).
- 출입문 쪽에서 소화기를 작동할 수 있을 경우(위급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
- 소화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소화를 시도하지 말고 우선 대피부터 해야한다.

■ 신속히 119로 신고한다.

전화를 걸 때에는 불이 난 장소와 화재원인, 대피하지 못한 사람의 수 등 알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침착하고 정확하게 말하여 주어야 한다.

※ 119 신고는 냉정히

- 화재가 긴급한 것인지.
- 불이난 장소(주소)와 목표물.
- (화재의 상황)어떤 건물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타고 있는지.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 불이났어요. 00시 000구000동000번지의 주택입니다. 00버스정류장 앞이구요, 단독주택의 부엌에서 불이 나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화상입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000이고 전화번호는 000-0000입니다.

④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높은 건물이라도 걸어서 피난하여야 한다.

⑤ 화재시 방안에 고립되었을 경우

-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간혀 있음을 알린다.
- 문을 닫고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 오는 곳을 담요나 시트, 양말 등으로 막는다.
- 손수건등에 물을 축여 마스크로 하고 가능한 자세를 낮게 한다.

5) 만일 대피하지 못했다면

심야에 일어나는 화재는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주변이 연기로 가득차있 다거나 하기 쉽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 문 등에는 물에 적신 타올이나 의류 등으로 틈새를 봉한다.(연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 외부로부터 눈에 띄기 쉬운 것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한다.
- 전화가 연결될 경우에는 119에 전화하여 자신이 갇혀있다는 것을 알린다.
-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에 설치되어있는 이웃집과의 칸막이 판을 발로 차서 부수거나 두드려서 이웃에 알리고 대피한다.
- 대피용 기구가 있을 때에는 기구를 이용해 아래층까지 내려간다.
- 아래쪽으로도 옆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 119의 구조를 기다린다.
- 겁에 질린 나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아무거나 집어서 두 드려 소리를 내어 갇혀있는 곳을 알린다.

6) 화재의 공포는 불보다 '연기'

화재에 있어서 불의 무서움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연기. 화재에서 사망자가 많은 것은 연기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 연기의 영향

- 연기속에 있을때에는 시야가 차단되어, 암흑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평상시와 다른 공포도 가중되어, 정신적인 패닉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등에 의해 중독을 일으킨다.
- 연기를 들이마시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거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 뜨거운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도나 폐에 열상을 입어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 연기의 이동방식

- 화재로 인해 뜨거워지므로 공기보다 가볍게 되어 상승한다.
- 상승한 연기는 천정까지 올라가게 되면 옆으로 방향을 틀면서 넓어진다.
- 연기의 양이 증가하면, 이번에는 바닥가까이까지 내려온다.
- 바닥을 수평으로 확산한 연기는, 화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냉각된다. 그러면 연기는 무거워지면서 하강하게 되어 시야를 차단하게 된다.
- 연기의 빠르기는 수직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초당 3~5m, 수평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초당 0.5~1m(사람이 걸음걸이 정도의 빠르기)정도이다.



응급처치

가족이나 이웃이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먼저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가 났을 때에는 도로가 유실되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취하면 사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응급처치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특히 지혈,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이 걸린 중요한 상황이므로, 만일의 때를 대비하여 구명강습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1. 응급처치의 일반원칙

- ① 응급처치를 올바르게 하면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악화를 방지하며,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동시에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 ② 사고장소는 위험한 곳이므로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주위의 여건을 충분히 살펴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구경꾼이나 군중심리에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
- ④ 대출혈, 호흡정지, 쇼크, 중독 등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119 에 전화시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사고시간과 장소
 - 사고원인과 부상자의 상태
 - 기타 주위의 상황
- ⑥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꼭 끼이는 옷은 풀어주며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를 부상자에게 보이거나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 ⑦ 부상자의 체온을 유지시키고, 출혈시에는 즉시 지혈하며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물질의 접촉을 피한다.
- ⑧ 의식이 없는 환자,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는 먹을 것이나 마시는 물 등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⑨ 부상자의 의식과 맥박, 상태를 재차 확인한다. 부상자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⑩ 부상자 운반시에는 손상부위에 충격이 최대한 적도록 한다.

※ 가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가정에서도 구급약품을 준비해 둔다.
- ② 구급상자는 습기가 없는 건냉한 장소에 두도록 한다
- ③ 사용후에는 반드시 정리하여 제자리에 둔다
- ④ 다 소모된 것과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보충 또는 교체해둔다.

2. 인공호흡

1) 호흡곤란의 증상

- 숨을 몰아 쉬거나 또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고 목 부분의 근육이 툭 불거진다.
- 환자의 호흡이 시끄럽거나 끊는 소리가 난다.
- 호흡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 청색증이 나타난다.

2) 호흡 곤란시

호흡이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면 환자의 입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가 확인하고 이를 먼저 제거한 후 기도확보를 해주어 자발호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호흡정지 후 5분 이내에 인공호흡이 시행되지 않으면 소생률이 극히 나쁘게 되므로 즉각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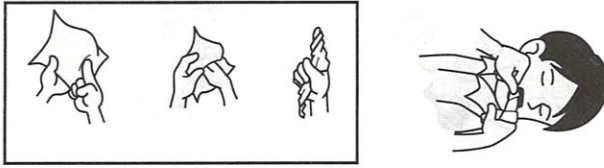


호흡확인
(보고, 듣고, 느낀다)

3) 인공호흡법

- ① 의식유무를 확인한다.
 - 환자 옆에 앉아 가볍게 흔들면서 큰 소리로 “괜찮아요?”하고 물어보아 의식을 확인한다.
- ② 도움을 요청한다.
 - 환자가 반응이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도움 요청을 한다.
- ③ 환자의 자세를 교정한다.
 - 필요한 경우 환자를 똑바로 눕혀 신체의 뒤틀림이나 부상의 악화를 방지한다.
- ④ 기도를 개방한다.

- 입안에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턱을 들어올린다.(두부후굴법)



⑤ 호흡 유무를 확인한다.

환자의 입근처에 구조자의 얼굴을 대고 호흡음을 들으면서 눈으로 가슴을 보면서 확인한다.

- 흉곽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 호흡음을 들어본다.
- 구조자의 뺨에 호흡에 느껴지는지 확인한다.(약 5초간 보고, 듣고, 느끼면서 호흡을 확인)

⑥ 두 번 충분히 불어넣는다.

환자가 호흡하지 않으면 곧바로 환자의 폐 속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준다.

-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를 유지한다.
- 환자의 코를 손가락으로 막는다.
- 환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단단히 덮는다.
- 각각 1.5초씩 두 번의 느린 호흡을 불어넣는다.(인공호흡)
- 공기가 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해 흉부를 관찰한다.

⑦ 맥박을 확인(목 옆의 동맥 박동 확인)한다.

- 목을 뒤로 젖히고 두 개의 손가락을 구조자 가까운 쪽의 목에 있는 목의 힘까지 내린다.
- 맥박을 5-10초간 측정한다.

⑧ 심한 출혈을 검사한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한 출혈이 있는지 검사한다.

⑨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만약 환자가 맥박이 없고 또한 호흡도 하지 않는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숨결을 유지한다.
-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꼭 막는다.
- 매 5초마다 한번 천천히 호흡한다(소아의 경우에는 매 3초마다 1번 호흡).
- 호흡할 때 환자 가슴의 오르내림을 지켜본다.

- 약 12번의 호흡을 1분 동안 지속한다.(소아의 경우에는 약 20번 호흡)



⑩ 맥박을 재확인한다.

- 인공호흡을 1분간(12번정도) 실시한 뒤 환자의 맥박을 확인해야 한다.
- 약 5초 동안 맥박을 느껴본다.
- 호흡확인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다.
-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분 마다 맥박을 재확인한다.

3.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은 심장이 활동하고 있을 때 환자를 소생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심장이 멎으면 호흡으로 인한 산소공급이 각 장기에 보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일 심정지가 의심되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 호흡이 정지되었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 4번 연속해서 재빠르게 공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이때는 폐의 공기가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인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환자의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하여 맥박이 느껴지면 정상호흡 때까지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맥박이 없으면 흉골부위를 주먹으로 내려친 후 다시 맥박을 확인한다. 이것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행동이며 맥박을 느낄 수 없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장이 멎었을 때의 증상과 처치

- 의식 상실
- 맥박 상실 - 경동맥, 대퇴동맥, 요골동맥 등
- 호흡 정지 - 호흡이 멈춘 후에도 심장은 한동안 활동할 수 있다.
- 청색증
- 눈의 동공이 확대되고 그대로 고정

2) 성인의 심폐소생술

- ① 손 위치를 찾는다.

- 흉골의 아래쪽 끝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손가락을 놓는다.
- 위의 기준이 되는 손가락 옆의 다른 손의 손 끝치를 놓는다.
- 기준점에서 손을 떼고, 그 손을 다른 손의 위에 얹어 놓는다.
- 손가락을 흉부에서 떼낸다.



② 흉부를 15회 압박한다.

- 손 위 방향에 어깨를 위치시킨다.
- 흉골을 3.8-5Cm 정도 누른다.
- 약 10초 동안에 15회 압박을 가한다.
- 압박은 상하로 유연하게 실시하고, 손은 흉부에서 떼지 않도록 한다.

③ 천천히 2회 공기를 불어 넣는다.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개방한다.
- 코를 막고 구강대 구강법으로 공기를 유입시킨다.
- 1.5초씩 2회 공기를 불어 넣는다.
- 공기를 유입시키는 동안 시선은 가슴을 확인한다.



④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 15회 압박과 2회의 공기 유입을 반복한다.

⑤ 맥박을 재확인한다.

- 약 1분 후에 5초동안 맥박을 확인한다.
- 만일 환자의 맥박이 살아나고 호흡을 한다면, 기도를 계속 개방시키고, 호흡을 확인한다.
- 맥박은 있으나 여전히 호흡이 없는 경우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⑥ 계속 맥박과 호흡이 없는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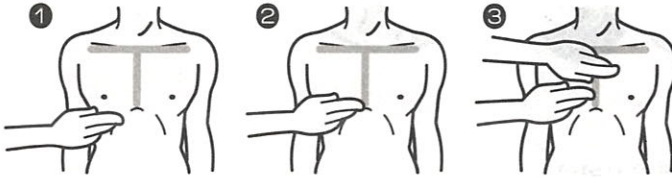
- 정확한 손 위치를 확인해서 흉부에 위치시킨다.
- 15회 압박과 2회 공기유입을 반복 실시한다.
- 매 수분마다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다.

※ 심장마사지할때 손의 위치

흉부의 가장 아래의 늑골을 검지와 중지로 만져본다

그대로 2개의 손가락으로, 늑골의 선에 따라 가슴의 가장 가운데까지, 미끄러지듯이 이동시킨다.

정중앙의 산모양의 꼭대기 부분에 손가락을 정지하고, 거기에 나란히 또 한손의 손바닥을 올려둔다. 이렇게 둔 손바닥 부분의 위치가 압박 위치가 된다.



3) 어린이와 유아의 심폐소생술

대상	누르는 위치	방법	누르는 정도	누르는 속도
소아 (2세~9세미만)	흉골의 아랫부분	한손의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가슴 두께의 대략 1/3	약 100회/분
유아 (2세미만)	유두를 연결하는 선보다 약 손가락 하나정도의 아랫부분	중지와, 약지 2개를 나란히 해서		적어도 100회/분
신생아 (약1개월미만)				약120회/분

4. 쇼크

- 쇼크란 심한 외상, 화상, 수술, 심한 출혈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혈관, 신경 조절기능이 저하되고 탈진한 상태 등을 말한다.
-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힌다. 심한 심장발작이나 폐질환 후에 쇼크를 받은 환자는 앉히거나,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해주면 호흡을 더 편안히 할 수가 있다.
-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는 먼저 머리를 옆으로 하여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얼굴을 똑바로 한 다음, 환자의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다. 환자의 목 뒤에 접은 담요 등을 대어 주면 좋다.
- 기도확보 후에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직접 할 수 없으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 구토를 할 경우 환자의 자세를 옆으로 하여 토한 음식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다.
-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담요 등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한다.
- 다리를 15~25cm정도 높여 혈액이 심장과 뇌로 많이 가도록 한다.
- 쇼크환자는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된다.
- 병원 도착시까지 계속 호흡과 맥박 상태를 관찰한다.

5. 골절

- 인체는 206개의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능으로는 신체 외형을 이루고 신체를 지지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
- 골절된 면이 피부를 뚫고 외부로 노출된 경우로 뼈는 돌출되어 돌출부위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오염된다.
- 폐쇄성 골절시 골절된 골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거나 골절된 골격에 인접한 피부에 손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때는 멍과 부종이 흔히 나타난다.
- 구조자의 손으로 다친 팔다리를 안정되게 고정한다.
- 상처를 멸균된 거즈로 덮고 지혈시킨다.
- 상처를 덮은 거즈로 위에 솜이나 패드를 다시 덮어 준다.
- 붕대로 고정하되 맥박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세기로 한다.
-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 준다.
- 10분마다 혈액순환을 확인한다.

6. 출혈

혈액은 정상 성인은 체중의 6~7%, 즉 체중 1kg당 70ml에 해당하는 혈액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혈량이 혈액의 10%정도가 되면 위험하고, 15~20%라면 수혈이 필요하며, 30%이상이 되면 매우 위험하다.

1) 증상

-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약하며, 불규칙적임.
- 체온이 떨어지며 호흡이 곤란해짐.
- 혈압이 점점 저하되고, 환부가 창백하고 차가워짐.
- 동공이 확대되고 반사작용이 완만해 짐.
- 환자는 갈증을 느끼면서 불안감을 느낌.

2) 지혈요령

① 직접압박 지혈법

- 출혈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출혈이 멈춘 후에는 소독된 거즈를 덮고 압박 붕대로 감아주며,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좀더 세게 압박 해준다.
- 팔다리의 출혈일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 준다.



② 간접압박 지혈법(동맥점 압박)

- 팔, 다리의 출혈이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으면, 동맥의 근위부를 압박하여 출혈을 막는 방법이다.

③ 지혈대를 이용한 지혈법

- 지혈대를 이용한 지혈법은 다른 방법으로 출혈을 멈출 수가 없을 절박한 상황일 때에 최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지혈대는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팔이나 다리에 피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마다 지혈대를 풀어서 피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혈시간을 반드시 표기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풀어주도록 한다.

7. 식중독

- 식중독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물내의 세균 자체가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세균이 생성한 독소로 인하여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음식을 적절히 조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 식중독일 경우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소화기 질환에 의한 증상인지 식중독에 의한 증상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먹은 음식물 등을 고려하여 식중독으로 판단되어지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다.
- 환자가 섭취하다 남은 음식물은 병원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8. 화상

1) 원인 및 증상

불이나 뜨거운 물, 증기, 전기 및 화학약품 등이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 부상정도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진다.

- 1도화상 : 열 등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
- 2도화상 : 피부에 물집이 생긴 정도

- 3도화상 : 조직의 파괴까지 이루어져 매우 심한 화상

2) 응급처치

- 화상부위에 붙어있는 옷가지 등은 제거하지 말고 더러운 물건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화상부위가 적을 경우는 깨끗한 수돗물로 냉각하면 통증이 다소 감소된다.
- 소독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어주는 것이 좋으나 붕대를 이용하여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 상처에 탈지면을 대면 나중에 떼어낼 때 다시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탈지면을 상처에 직접 대지 않도록 한다.
- 피부에 물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터트리지 않도록 한다.
- 화학물질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소독물로 계속 씻어 주도록 한다.
- 약품에 의한 화상은 신속하게 많은 물로 피부에 묻은 약품을 계속해서 씻어 내며, 약품에 젖은 의복은 벗겨 버리고 소독된 거즈를 붙인 다음 신속히 119로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 눈 속에 약품이 튀어 들어갔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눈을 충분히 씻고 소독한 거즈를 붙인다. 알카리성 약품일 경우에는 우유로 씻어주면 효과적이다.

2장 재해와 자원봉사

재해구호자원봉사

1. 재해구호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1) 재해구호자원봉사의 정의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된다. 이러한 재해가 일어난 지역에서 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재해구호 자원봉사이다.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면 집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전기, 수도가 끊기고 도로가 유실되어 재해지역의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재해발생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피소로 이주하거나 다시 대피소에서 복구된 집으로 돌아가는 이재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등 재해지역의 상황도 서서히 변화한다. 재해구호자원봉사는 이러한 각각의 변화하는 재해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한 활동을 전개한다.

자연스러운 재해복구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재해구호자원봉사이다.

2) 재해구호활동 참여방법

- ① 지역내 자원봉사 그룹이나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등이 벌이고 있는 재해구호활동 프로그램에 참가 한다.
- ②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가한다.
- ③ 산업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생회 등의 단체가 벌이고 있는 활동에 참가 한다.

3)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내용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은 크게 전문적인 구호활동과 일반적인 구호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전문적인 구호활동

재해가 일어나면 소방, 경찰, 군인이 제일 먼저 달려가 인명구조작업을 벌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대피소 설정이나 긴급물자를 조달한다. 이들의 활동은 법률이나 제도에 정해진 조직적 활동이다. 또 의사나 간호사, 토목, 건축기술자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살려서 일반 자원봉사자가 하기 힘든 영역을 담당하는 활동을 전문적인 구호활동이라고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명구조
- 주택 안전 점검
- 전기제품설치 및 농기계수리
- 도배 및 가전제품 수리
- 건설자재조달
- 지붕수리, 벽보수공사, 가옥구조 보강
- 노약자, 환자 호스피스활동, 부상자 돌보기, 유아돌보기
- 수화통역, 안내
- 정신치료, 사회복지활동, 콘서트, 연극
- 이미용, 맛사지
- 트럭등 대형차 운전, 미니버스운전
- 컴퓨터통신, 인터넷 설치
- 아마츄어무선
- 광고지제작, 정보수집
- 행정단체와의 절충, 회의나 모임운영

② 일반적인 구호활동

일반적인 구호활동은 어느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분들의 인간성과 존엄이 지켜지도록 애쓰는 활동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차량교통통제 : 수해복구진입로 혼잡지역 교통정리
- 급식지원 : 부식조달, 조리, 배식, 설거지등
- 대피소정리 및 안내
- 구호물품 분리 및 전달
- 홍보 : 피해상황접수 및 자원봉사수요처 홍보
- 전화안내 : 대피소 및 자원봉사센터 문의전화 안내
- 환경정리: 쓰레기치우기
- 복구작업 : 토사제거, 도로정비, 농작물복구, 빨래, 가재도구 정리 및 세척
- 행사기획 : 집회장소제공 및 간단한 행사기획 및 진행
- 자원봉사자 안내 : 작업장까지 안내 및 인도

③ 활동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 노력봉사 (구호품 세트화 작업 및 분배, 급식, 안내, 청소·세탁 등)

- 기능봉사 (집수리, 도배, 차량봉사 등)
- 상담봉사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등)
- 의료봉사 (의료상담, 무료진료, 물리치료, 간병 등)
- 전문봉사 (인명구조, 통신, 전기, 가스, 중장비지원 등)
- 업무지원봉사 (정보 모니터링, 자원봉사 상담·접수, 자원봉사자 모집활동, 업무연락 등)
- 물품기부 (의류, 생활용품, 음료수, 학용품, 식량, 김장·밑반찬 등)

2. 재해지역에 의연품을 보내고 싶을 때

1) 의연품이란

의연품이란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호를 위하여, 사람들의 선의에 의하여 보내진 것으로 재해지역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내는 때와 방법에 따라서는 선의의 물품이 되기도 하고, '재해지역을 엄습하는 제2의 재해'라고 부를 정도로 처치가 곤란한 물품이 되기도 한다.

① 의연품을 보낼 때 고려해야 할 점

재해지역의 이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연품이 보내지고 있지만 사실 재해 지역에서는 물품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가 우선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일들이 미뤄지기도 한다.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의류나 생활용품, 식료품, 학용품 등을 함께 싸서 보내오는 소포이다. 이런 소포는 물품별로 다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또 직접 이재민에게 전해줘도 필요 없는 물건은 남아서 쓰레기가 늘어날 뿐이다.

또한 보내진 의연품이 이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양이 아닌 경우에는 형평성있게 배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나눠주지 못하고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물자 대부분은 재해 복구활동이 끝난 후 처분하게 되는데 그럴때 보관 및 처분비용도 많이 든다.

- 현지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보낸다.

의연품을 보낼 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 구, 동, 자원봉사센터에 반드시 상의한 후에 재해현지에서 무엇이 언제 필요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오늘 필요한 물품이 재해상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품들이 그 다음날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편적인 정보나 자기생각만으로 물품을 보내면 안 된다.

의연품을 보내고 싶을때에는 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 또는 재해구호협회(02-3272-0123)으로 보내면 된다.

• 같은 값이면 의연금으로

현재 재해 구호활동은 기업체에서 다양한 지원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재해 지역에서 필요한 물자의 공급도 그 예외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도착하는 물건은 그 분류에 많은 손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물품의 공급이 일정한 수량의 제품으로 보낼 수 있는 기업에 맡기고 의연금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재해발생 초기에는 생활용품이 좋으며 재해가 어느정도 복구가 되어 지역에서 상거래등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물품보다는 농협 상품권 같은 것을 더 필요로 하는 이재민들도 있다. 다만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배분에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상품권 때문에 이재민들간, 또는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간의 의견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 자기 집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는 보내서는 안된다.

의연품 중에는 상식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 태풍 <매미>같은 경우에도 삼척지역에 보내온 물품 중에는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는 장난감, 너덜너덜한 의류, 때가 낀 의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재해 지역이 마치 방대한 쓰레기장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쓰지 못하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물품을 받았을때 이재민이 느끼게 되는 분노와 슬픔을 생각한다면 의연품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② 의연품을 보내는 방법

효과적인 의연품의 제공방법은 '같은 물건을 정리한 수량'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수 1.5리터 50상자, 사과즙 10상자, 쌀50포대 등처럼 같은 품목을 한 상자에 정리하고 상자 밖에는 품명을 크게 써 둔다. 어떤 물품을 보내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필요물품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해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물자 품목과 수량 리스트를 보내고 필요하다고 보내온 회답이 있는 물건을 보내는 편이 좋다. 물자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공하도록 한다.

③ 의연품을 보낼 때 지켜야 할 내용

보내진 의연품은 그 포장을 열고 내용을 확인하고 분류하여 이재민에게 전달하는 방대한 작업을 한다. 이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내는 방법에 있어도 몇 가지 지켜줄 일이 있다.

• 지역이나 학교, 직장단위에서 모아 일정수량을 채운다.

한집에서 한 상자식으로 소량을 보내는 것보다는 동네, 학교, 직장 등에서 물품을 모아 정리 한 후에 보내면 좋다.

- 상자 단위로 물품별 단위로.

한 상자에 여러가지 복잡한 물건을 넣어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드시 어린이 옷, 어린이 양말, 연필 등 개별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

- 상자에는 품명 수량을 기입해야한다.

상자에 들어가 있는 품명과 수량을 적어서 보내야 한다.

- 모아서 보낼 경우에는 전체 목록표를 붙인다.

몇 개의 상자를 함께 보낼 때에는 상자별 내용과 전체 목록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 불필요한 물건은 사전에 선별하고 보낸다.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도 너무 낡고 부서진 물건은 의연품으로서는 부적절하다.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기 전에 점검한 다음 보내는 것이 좋다.

- 여러종류의 물건보다는 한 종류의 물품을 다량 보내는 것이 좋다.

재해지역에는 의연품을 둘러싼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형평성이 있는 배분을 위해서는 한 종류의 물건을 다량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④ 보내서는 안 되는 의연품

- 채소, 생선 등 가공하지 않은 식품, 유효기간이 짧은 식품.

(이재민에게 바로 전달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유리용기, 병 등 깨질 염려가 있는 것.

- 위험물.

- 특수한 도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

- 헌 옷 (헌 옷은 설령 세탁을 했다고 해도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겨울 같으면 잠바나 코트와 같은 방한복은 그래도 용도가 있으나 그 외에는 보내지 않은 것이 좋다)

- 의약품 (특히 먹는 약은 사람의 체질과 관련되므로 보내지 말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마스크, 붕대, 가제, 일회용 밴드 등이 좋다. 물론 새 것으로 보낸다.)

재해구호자원봉사 활동

1.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면

1) 우선 피해상황을 파악하자

자원봉사자로서 재해구호활동에 참가하고자 할 때 먼저 재해가 일어난 곳의 피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재해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자신의 몸을 지키고 다른 이재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상황과 정확한 현지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2) '갈까, 말까' 를 판단한다.

재해가 일어난 지역에서 재해구호자원봉사자로서 어떤 지원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나 시·도나 구·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자원봉사담당자등과 상담을 한 후 적절한 정보를 입수한다.

① 마음대로 판단은 금물

혼자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소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구명, 구호활동에 필요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해발생부터 3일 후 정도에 가고 말고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자원봉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더라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활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재해지역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관리자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관리자는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활동과 활동희망자의 개성이나 특기, 장점 등을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사령탑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참가희망자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다.

3)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① 재해지역에 가기로 판단했다면 일단 가족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적어도 하루에 1회 이상은 가족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② 재해지역까지 교통기관의 연결 상태를 잘 확인해 둔다.

재해지역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마비 상태에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가 현지에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도로와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분 침수되었고 사람의 이동 자체도 위험한 상태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과 협조하여 행동한다.

기업체 가운데는 사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있거나 또는 지원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곳이 많다. 근무지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다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한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자원봉사센터(국번없이 1365)에 문의해보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단위에서의 지원활동계획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활동 계획이 있다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여 참가하는 것이 좋다.

• 단독으로 가는 것은 피한다.

재해지역에 자원봉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도중이나 현지에서 부상당해 다른 사람의 구호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혼자 재해지역으로 가는 것은 가급적 삼가고 단체로 가는 것이 좋다. 또한 자가용으로 현지에 들어가려는 생각도 좋지 않다. 재해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유실되어 일부 도로만 통행이 되거나 도로 자체가 협소한 경우에는 승용차 때문에 중장비 차량이나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승용차는 사람만 주로 운반할 수 있지만 주차공간, 도로정체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구호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대형차량은 물자 수송에 도움이 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기동력을 발휘함으로써 환영을 받을 것이다.

③ 필요한 물건은 사전에 확인한다.

자원봉사자로서 재해지역에 가는 것은 재해지역에 도움이 되기위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개인장비이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물건은 긴소매옷, 긴바지, 우비, 장갑, 갈아신을 신발, 수건,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양말, 음료, 도시락, 의료보험증(적어도 복사본등), 휴대전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은 웃는 얼굴!

④ 재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 활동예약을 한다.

재해지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는 재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 활동예약을 해야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곳도 있으니 가는 날짜, 활동시간, 인원 등을 재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해주고 활동지역을 배치받아야 한다.

⑤ 소지품 준비에 유의할 점

• 최저 3일간을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

당일 활동이라면 도시락을 준비해야하지만 숙박을 하는 활동이라면 최저 3일정도를 대비한 비상식품을 준비한다. 보관이 쉬운 음식이 적절하며 음료수도 준비한다. 고칼로리 쿠키나 비스킷, 인스턴트식품, 즉석식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쓰레기도 본인이 처리해야 하므로 쓰레기봉투도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한다.

• 필수품, 있으면 편리한 물건, 필요 없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두자

예를 들어 손전등은 있으면 편리한 것. 무전기는 개인이 함부로 가져오지 않은 것이 낫다. 필수품을 중심으로 준비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이 필요한 용품을 챙겨야 한다.

4) 소지품 목록

3일정도의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며, 재해지역의 상황이나 계절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1.돈	9.우비	17.휴대용 난로	25.침낭
2.주민등록증	10.운동화	18.물통, 물	26.간이 텐트
3.보험증 사진	11.헬멧	19.병, 캔따개, 칼	27.면장갑
4.속옷	12.식료품(3일분)	20.라이타	28.로프
5.수건	13.식기	21.휴지	29.손전등
6.휴대용라디오	14.마스크	22.구급약	30.지도
7.세면도구	15.쓰레기봉투	23.비닐봉투	31.방수시트
8.휴대전화	16.전화카드	24.필기도구	

■ 옷

기후에 맞게 움직이기 편한 옷이 좋다. 특히 겨울에 속옷은 가능한 면제품은 피하고 땀을 발산하는 화학섬유나 양모 속옷을 선택한다. 면 속옷은 땀을 흡수해서 몸을 차갑게 해서 체력 소모를 하게 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겉옷은 보온성이 높은 스웨터에 파카 등이 좋다. 우천 시의 준비도 꼭 해둘 것.

■ 낮고 두툼한 운동화

자원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력이므로 신발은 낮고 두툼한 신발이 가장 무난하다. 농구화나 테니스화도 좋으나 운동화 내부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오는 날에도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신발을 준비한다.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장화가 필요하다.

■ 장갑

쓰레기를 치우거나 물자를 운반할 때도 장갑은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좋은 장갑은 작업용 목장갑이다. 가격도 싸고 세탁도 용이하다.

■ 마스크

지진과 같은 재해에서는 쓰러진 가옥이나 무너진 빌딩 파편으로 엄청난 먼지가 발생한다. 문제는 그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석면이다. 석면은 단열재 등에 사용되지만 그것을 빨아들이면 10년후, 20년후에 폐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마스크 착용은 이것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업용 마스크가 가장 좋다. 보통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

■ 돈

너무 많은 양이 아닌 적당한 금액이 좋다. 돌아올 때의 차비는 꼭 가져가고 연락을 취할 때에 쓸 전화 카드도 필요하다.

■ 배낭

자원봉사자는 자기 소지품은 자기가 준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신의 물건은 하나로 정리해 갖고 다니기 위해서는 배낭이 꼭 필요하다. 앞 주머니에는 금방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넣어 둔다. 새것을 구입할 때는 좀 비싸더라도 체격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편이 좋다.

■ 침구 (침낭)

당일치기로 활동을 할 경우는 필요하지 않지만, 침식 제공을 받은 경우나 텐트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재해 현장에서는 이불도 부족한 상태이다. 하물며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될 이불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선은 침낭을 준비해 두자. 여름용과 겨울용은 성능이 다르므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침낭은 습기가 차기 쉬우므로 사용한 다음에는 그늘에서 말린다.

■ 재해지역 및 주변 지도

휴대하기 간편한 축소형 지도를 선택한다. 사전에 재해지역의 도로, 철도 등 교통정보도 조사 해 둔다.

■ 세면도구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등.

■ 구급 세트(의약품)

붕대, 응급반창고, 두통약, 감기약, 위장약, 비타민제 등을 활동하는 일수에 맞춰 준비한다. 의료보험증은 꼭 가져간다.

■ 그 이외의 장비

이동전화, 라디오, 손전등, 필기도구, 노트, 매직펜 등이 있으면 편리.

2. 재해지역에서의 활동

1) 사전활동예약 및 사전교육

- ① 현지에 도착을 하게되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도착사실을 알린다.
- ② 활동예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지역을 확인한다.
- ③ 자신이 활동하게 될 지역의 안내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사전교육을 받는다.

2) 사전예약없이 재해지역에서 활동지를 배치받을 때

- ① 현지의 자원봉사센터에 접수한다.

활동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현지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활동지역을 배정받는다. 활동접수를 할 때에는 활동 가능 일수와 자원봉사 경험도 알린다.

- ② 자기의 특기, 능력, 경험을 살린다.

어떤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는 것과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면허, 대형면허, 변호사, 간호사, 전기기사, 교사, 토목, 건축기사 등이 있다. 이들의 능력이나 기능은 재난을 당한 곳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알리고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 ③ 자기의 능력이 바로 발휘하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마라.

재해현장에서는 자신의 특기나 능력에 맞는 일을 배치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재해를 당한 곳이나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요청하는 일이나 작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발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초조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

1) 주목을 받게 되면 들뜨기 쉽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든지 텔레비전 카메라에 비춰지든지 하면 지나치게 험기왕성해져 과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때로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철야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만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신하면서 마음의 한구석에서 남의 눈에 띄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재민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말하고 다니는 자원봉사자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자원봉사자는 구세주가 아니며 또한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재해구호활동은 이벤트가 아니다.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인 경우 활동의 성질이 이벤트적인 것임을 부인 할 수 없으나 그것을 활동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은 자신이 무엇을 하면 재해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재해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은 재해구호활동을 하기 위해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이나 이재민의 눈에 띄기 쉬운 활동에만 몰리는 것이다. 또한 단체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자신들의 단체를 광고하기 위해 나온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구호활동보다는 자신의 단체에 대한 광고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이재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입히게 되므로 삼가야한다.

또한 재해현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끼리 서로 친구가 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친구가 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친한 봉사자들이 모여서 이재민은 잠들고 있는데 회관의 구석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거나 하여 이재민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돕겠다’는 정신이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자발적으로 ‘돕고 싶다’는 정신이다.

‘보기 좋으니까’ 라든가, ‘뭔지 모르지만 멋지니까’ 하는 생각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치게 된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돕고 싶은’ 마음 중에도 ‘보이지 않게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4) 이재민을 약자로 보지 않는다

개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는 '내 손길이 없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기에 이재민이 바라지도 않은 일을 한다든지 봉사자끼리 이재민을 쟁탈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재민이 점차 원기를 회복해 가는 모습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이재민은 약자이며 불쌍한 사람이니 그를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해 직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재민은 약자도 불쌍한 사람도 아니다. 보통사람이 물적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타격을 받은 것이며 착실히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재민을 접할 때는 좀더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재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야한다.

5) 활동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원봉사자의 성과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지 않은 것이 올바른 봉사자의 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원봉사자 중에는 눈에 보이는 활동의 성과를 구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활동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6) 일상생활의 연장이 자원봉사 활동

재해가 일어난 곳에서 침식도 잊은 채 이재민을 돌보거나 구호 작업을 열심히 하던 자원봉사자는 재해지역이 복구된 후에는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처음 며칠은 뿌듯한 마음으로 지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점차 잊고 만다.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소중하다. 재해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자원봉사자가 돌아가서는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는지 한다면 지난 재해기간동안 했던 봉사자의 활동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4. 재해구호활동시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

1) 재해시 자원봉사자의 활동 종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참가 형태에 따라 몇 개의 종류로 구분된다. 각자가 자원봉사자로서 행동할 때 자기가 어떤 형태와 목적으로 참가하는가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① 전문성, 조직성이 있는 자원봉사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

사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단체는 그 활동영역이나 활동목적이 어느 정도 명확히 되어있어 단체 중에 활동의 조정역할을 하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 기능집단은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재해가 일어나면 이들 단체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력하여 행동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② 전문성은 있으나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의사, 통역, 상담원 등 구호 활동이나 이재민의 지원에 큰 힘이 되는 전문가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공적인 기관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전문성은 없으나 조직에 속한 자원봉사자

재해를 대비한 훈련에 경험이 없는 기업체의 사원, 지역 단체 등에 속해있는 자원봉사자이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인원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특정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접수를 받고있는 센터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④ 특별한 전문성도 없고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는 가장 많이 모이는 가능성이 있는 봉사자이다.

직접 재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활동하는 것 보다는 재해지역의 상황이나, 필요한 작업내용과 타 단체의 활동 상황 등의 정보가 집약되어있는 시청, 구청을 통하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등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

재해지역에 모인 많은 자원봉사자가 서로 아무 관련 없이 마음대로 활동한다고 하면 그 활동은 재난을 당한 곳이나 이재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자라고 하는 조정자이다.

① 자원봉사자의 임무와 성과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로서 재해지역에 올 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의 성과나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않은 것이다.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한 이상 어떠한 일이든지 이재민의 구호나 재해 지역의 복구에 분명 공헌한 것이다. 짐을 나르거나 물자를 분류하는 일을 하는 봉사자에게는 이 일이 재난지역의 복구에 얼마나 중요한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

도 중요하다.

② 봉사자들끼리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한다.

봉사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마련해줘야한다. 이러한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불만이나 의견을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

③ 재해지역에서의 구호활동의 수급조정과 팀리더의 관리

재해지역에는 여러 가지의 일거리가 있다. 이것은 재난을 당한 지역이나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이다. 이 요청에 대하여 봉사자 집단이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자원봉사자 집단에는 집단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리더가 존재한다. 각각의 자원봉사단체에 존재하고 있는 리더의 활동을 통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관리자이다.

④ 자원봉사자와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행정기관과의 조정역할

관리자는 항상 현장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는 일의 우선 순위나 인원배치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리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활동이나 대피소의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조정에 관한 것도 관리자의 일이다.

3) 자원봉사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일

■ 급식상태의 점검과 관리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다양각색이다. 그 하나 하나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급식지원은 이재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식지원은 자원봉사단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대피소의 급식은 대부분 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식상태의 점검이 꼭 필요하다.

① 위생에 주의를 기울인다.

대피소등에서 음식공급의 수단으로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많으나 밥을 짓도록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메뉴, 조리방법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식기는 보통 일회용으로 쓰지만, 뜨거운 국을 담는 이외에는 용기 위에 랩을 깔고 사용하면 씻지 않아도 여러번 사용할 수 있다.

② 밥을 짓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대피소의 모든 이재민이 세끼를 대피소에서 해결할 경우 식사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아침 취사 준비는 일찍부터 서둘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원의 확보와 교대로 하는 반찬거리의 수송 등 책임을 질 일들이 많다.

지역의 대피소같은 경우에는 조리, 급식에 관한 모든 일을 자원봉사자가 담당할 필요는 없다. 이재민과 상의하여 교대로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시 식료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재민들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 밖에 없다. 만약 조리사나 영양사가 가까이 있으면 지혜를 빌리도록 해보라.

③ 이재민으로부터 지나친 기대나 강요는 삼가자

한정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리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언제나 이재민들이 기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재민중에서도 조리내용과 방법, 맛에 대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책하거나 하여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이재민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이재민 개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재민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재민과 대화할 때에는 이재민과 지원자라는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이재민에게 대하는 태도에 주의해야 한다.

① 이재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자.

재해 때문에 집이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고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날 힘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는 이재민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자가 간직한 보이지 않은 힘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곁에 있어준다 : 어깨나 팔에 손을 얹고 “나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린다.
- 말을 경청한다 : 이재민의 말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는다. 다만 이런 말에 공감하여 자원봉사자의 영역을 넘어 행동하지 말아야한다.
- 이재민의 감정을 받아 준다 : 때에 따라서는 어깨에 기대여 울거나 화를 내며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발산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마음의 문제 이외에도 상담에 응한다 : 의식주의 일상생활문제에도 힘을 빌려준다. 다

만 금전적인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련된 문제는 리더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한다.

② 이재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자.

대피소나 부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야만하는 이재민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원봉사자에게 여러 가지 바라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때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이재민은 '애초부터 제멋대로다' 라고 전제를 하고 대하기

이재민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의 일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당연한 지도 모른다. 더구나 어제든 오늘도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있으면 평상시에는 사리에 분명한 사람이라도 제멋대로 행동하기 쉽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자기 고집만을 피우는 이재민에게 화를 내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 경솔하게 떠맡지 않는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의 요청을 다 받아주고 싶어진다. 그러나 경솔하게 떠맡는 것은 금물이다.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될 때는 안되는 이유, 되면 되는 시기 등을 말해 두는 것이 좋다

• 피해자의 요청을 다수결로서 채택함은 좋지 않다.

가령 이재민으로부터 5가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자.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자원봉사자끼리 상의하여 이것은 실행하고 저것은 실행하지 않는다고 다수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자원봉사자라는 입장을 활용하라

이재민의 요청과 자원봉사자의 힘의 한계가 상충할 때 자원봉사자가 이재민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충돌이 생기는 일도 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외부에서 온 자원봉사자라고 말하는 것이 상책이다.

4) 팀 리더의 역할

① 리더의 역할과 조건

자원봉사자의 리더는 몇 명의 봉사자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를 지

시하고, 다른 멤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원봉사자 리더는 자원봉사자중에서 나온다.

항상 다른 자원봉사자 멤버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조건이다.

② 리더 아래서 팀이 행동한다

재해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든 꼭 지켜야할 사항은 자원봉사자 리더의 지시에 따라 팀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과,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작업개시, 작업종료, 작업방법 등 리더의 지시에 따라 팀워크를 이루어 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③ 이동전화 등 센터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긴급시에 자원봉사센터와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해둔다

④ 주민과의 작업내용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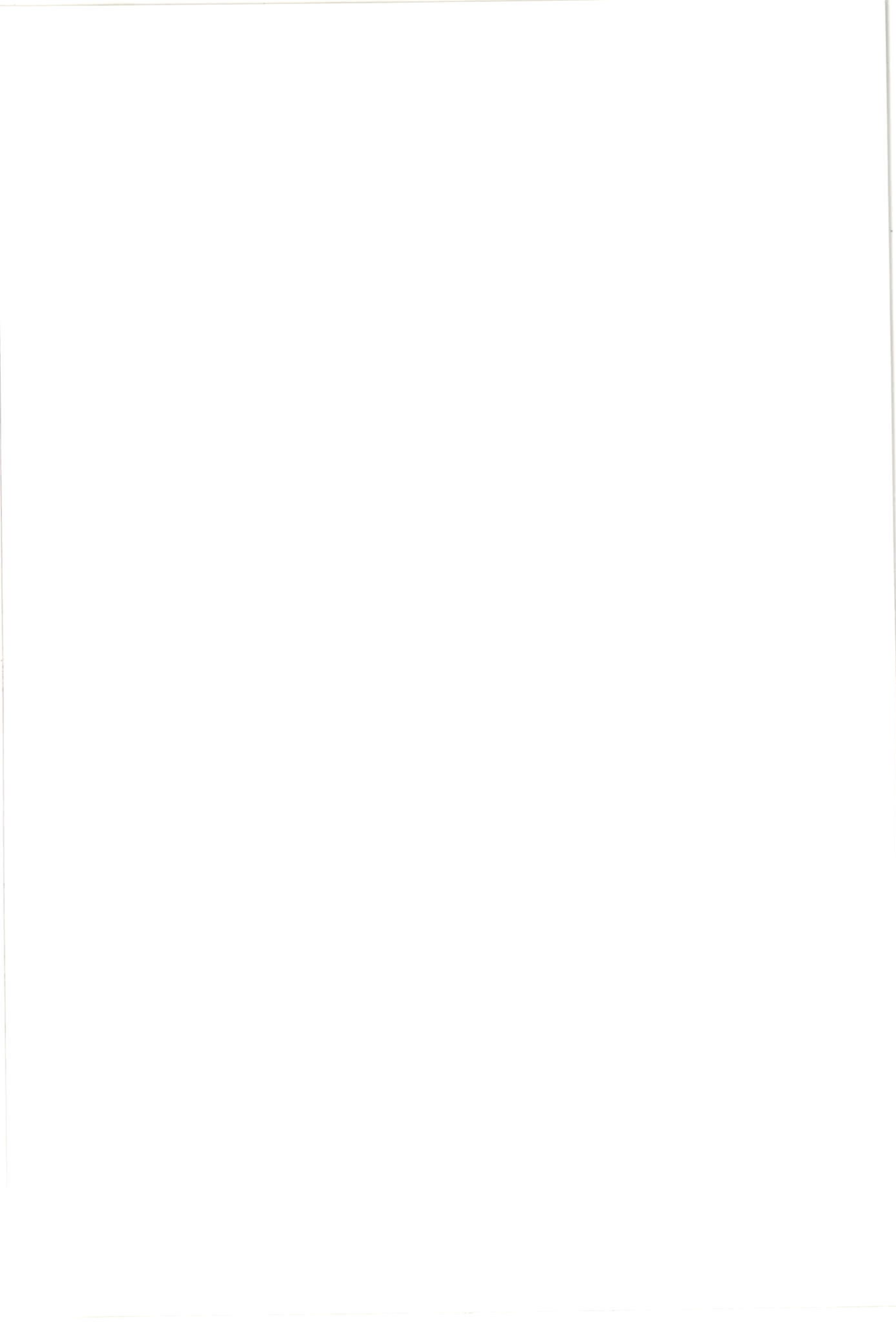
작업개시전에 주민과 작업 의뢰내용을 재확인한다. 작업중에 사전에 조정하지 않은 작업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와 연락을 취해 대처한다.

⑤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작업시간을 준수하며, 작업안전규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⑥ 안전관리의 철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의료기관에 우송하는 것과 같은 안전관리가 팀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다. 사고시 상담, 우송하는 의료기관등을 확인해 둔다. 작업속도가 늦게 되더라도 휴식시간, 점심시간등을 잘 지켜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266(부평 4동 879)
TEL : (032)524-5911 / FAX : (032)509-6895
WWW.icbp.go.kr / voluncenter



전국재해구호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Disaster Relief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TEL : (02)3272-0123 / FAX : (02)3272-0122
www.relief.or.kr
